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53. 파브리카 다 나따 (Fábrica da Nata)

동 루이스 1세 다리를 다 건넜다. 다리 끝으로 오면 포르투 구시가지로 들어가게 된다. 그 지점을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중세 시대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아래로 석양에 물든 오렌지 나무들이 보였다. 계속 걸어가면 포트 와인 견학을 하러 매직 트레인 기차를 타러 갔던 곳이 나온다. 그날 꼬마 기차를 타고 출발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걸어 온 셈이다.

우리는 언덕으로 내려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는 구시가지로 들어갔다. 거리는 쓸쓸한 겨울 저녁 희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석양이 건물들 꼭대기에 황금빛으로 걸려 있었다. 오른쪽에 싸움 벤투 기차역이 보였다. 황금빛 석양이 기차역 꼭대기에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유독 환해서 마치 저무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오후 내내 걸어 다닌 우리는 꽤 지치고 피곤했다.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다가 뜻밖에 아주 반가운 가게를 하나 발견했다. 파브리카 다 나따. 에그 타르트 가게이다. "파브리카 다 나따! 여기 있었구나!" ROI 환호성을 질렀다. 포르투에 에그 타르트 맛집의 쌍벽을 이루는 상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포르투 도착 첫날 이미 가서 먹어 본 '만테이갠리아'이고 다른 하나가 '파브리카 다 나따'이다. 일부러 찾아가 볼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리 앞에 딱 나타나다니! 그것도 춥고 지치고 허기가 진 타이밍에 맞춰서!

큰 유리창으로 가게 안이 훤히 보이던 만테이갠리아와 달리 파브리카 다 나따는 나지막하고 귀여운 초록색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문 가장자리에는 아직도 꼬마 전구가 조롱조롱 달린 크리스마스 장식 소나무 갈란드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검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과자집을 발견한 쉼표와 그레텔처럼 정신없이 기뻐하면서 파브리카 다 나따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파브리카 다 나따 매장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에그 타르트 진열대에는 갓 만든 에그 타르트가 잔뜩 쌓여 있었

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서 있었는데 에그 타르트만 팔던 만테이갠리아와 달리 이곳에는 다른 메뉴가 꽤 있었다. 또한, 진열대가 곧 작업장이어서 에그 타르트 만드는 수작업을 진열대 앞에서 볼 수 있었던 만테이갠리아와 달리 이곳에는 에그 타르트 만드는 작업장이 다른 공간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흙은 꽤 넓었고 여기저기 조그만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서서 먹게 되어 있다. 바닥에는 무늬가 화려한 무채색 타일이 깔려 있었다.

우리는 에그 타르트 두 개와 카모밀 차를 주문했다. 간편하게 서서 먹고 가는 매장인데도 하얀 사기 찻주전자와 찻잔으로 구성된 풀 세트가 정식으로 나온다. 5 유로도 채 안되는 짠 가격을 생각한다면 황송할 정도의 서비스였다. 우리는 노란 커스터드 크림이 까맣게 그을린 에그 타르트를 앞에 놓고 진심으로 행복했다. 추운 겨울 거리를 헤매다 들어온 이 아늑한 매장에서 역시 추위에 땀 들어온 사람들과 어울려 따끈한 차 한 잔에 예쁘고 달달한 에그 타르트를 먹는 것이 엄청난 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종이컵에 복내어 주지 않고 보드보드 빛나는 하얀 사기 세트에 정성껏 담아 내어 준 차도 그 기분에 한몫 했다.

우리는 에그 타르트에 시나몬을 잔뜩 뿌려서 먹었다. 파삭하게 한 입 베어 무니 부드러운 커스터드가 입 안에 가득 찬다. 딱 기분 좋은 정도로 달콤한 맛이였다. 만테이갠리아 에그 타르트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맛이 연한 것 같았다. "어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먹고 있는 R에게 물어 보았다. "음, 비슷한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하였다. 웬지 모르게 파브리카 다 나따의 에그 타르트가 더 흡족하게 느껴졌다. 에그 타르트 만드는 레시피가 거기서 거기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곳 매장 구조나 먹는 과정이 조금 더 전통적인 경험에 가깝지 않나 싶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그 타르트의 뒷맛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이다. 계란과 유제품, 설탕이 잔뜩 들어갔는데도 느끼하거나 텁텁하지 않고 아주 개운하고 산뜻했다. 파브리카 다 나따 비법임에 틀림없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562) 237-8900 OC

타운 미용실

헤나염색
볼륨매직
염색+코팅+컷트
펌/ 남녀 컷트
세팅펌/ 디지털펌

Grand Opening
Han's Skin Care
 30년 경력의 Antonia Han
최신 기계 완비
714.944.4241

케라틴 트리트먼트 매직

*예약 전화 **(714) 901-6388** 화요일 휴무
 7536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이광혁 내과 : 일반내과 전문의

(JOHN K. LEE, M.D.) 노인과 : 메디케어 전문의

이민국(USCIS) 신체검사 지정병원

건강 검진 스페셜 \$149

- 1. 내과 전문의 상담, 진찰 및 치료 (1회)**
- 2. 종합혈액검사:**
 혈당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종합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검사, 전해질검사, 혈중단백질검사, 칼슘검사, 빈혈검사, 백혈구검사, 적혈구검사, 혈소판검사, 요산검사, 지방간검사, 당화혈색소(HbA1c)
- 3. 정밀소변검사:**
 Color, Character, Specific Gravity, PH, Glucose, RBC, Protein Ketones, Blood, Urobilinogen, Nitrite, WBC, Bilirubin, Epithelial Cells, Bacteria, Casts, Crystals

진료시간 : 월 - 금: 8:30am ~ 5:00pm 토, 일: Closed

Tel: 714.879.8700
 400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각종보험(PPO), 메디케어 플랜 받습니다.

John K. Lee, M.D.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미국 노인과 보드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CAQ in Geriatric Medicine
 Member,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Member, American Geriatrics Society
 Member, American Medical Association